

蕉雨 黃壽永·樹默 秦弘燮의 佛像 研究

김춘실*

- I. 머리말
- II. 황수영의 불상 연구
- III. 진홍섭의 불상 연구
- IV. 맺음말

I. 머리말

황수영·진홍섭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분들의 학문을 회고해 보면 한국미술사학이 어떠한 기초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잘 알게 된다. 또한 그분들의 학문에서 현재의 학계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도 아울러 깨닫게 된다.

두 분의 연구 업적은 그동안 회갑이나 퇴임 등의 기념논총을 간행하거나 한국미술사학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¹ 이를 통해 두 분이 해방 이후 한국미술사학의 기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¹ 한국미술사학회, 『고고미술』 136·137 (수목진홍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78. 3) ; 한국미술사학회, 『고고미술』 138·139 (초우황수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78. 9)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 13·14 (수목 진홍섭박사 퇴임 기념논총, 1983) ;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연구』 188 (한국미술사연구 30년 : 회고와 전망, 1990.12) ; 황수영, 『선사의 길을 따라』, 『한국사시민강좌』 11 (1992) ; 『황수영전집』 1-6, (혜안, 1997-1999) ; 강병희, 『초우 황수영 : 한

초를 마련하였음을 잘 알려져 있다. 이분들의 많은 연구 성과 중에서도 특히 불교미술 관련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미술사에서 불교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했던 분야인 때문이 아닐까 한다.

주지하다시피 두 분의 학문 바탕에는 우현 고유섭이 자리하고 있다. 이분들이 한국미술사를 연구하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스승인 고유섭의 죽음과 조선의 해방이라고 하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아마도 당시 두 분 모두 한국미술사 연구가 쇠퇴·소멸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느낀 듯하다. 이는 고유섭의 사후 황수영의 추도사에서 “선생이 남기고 가신 아름다운 생애를 본받고, 선생이 남기고 가신 훌륭한 연구를 밝히겠다”고 한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이로써 황수영은 스승의 유고를 정리하고 서울박물관 본관 연구원으로 그리고 진홍섭은 스승이 계셨던 개성분관과 이후 경주분관을 맡는 것으로부터, 각각 스승의 학문을 본격적으로 계승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두 분의 첫 번째 논문은 늦은 나이인 40세 전후인 1959년과 1960년에 나오고 있는데 모두 불상 관련 논문이다.² 이에 대해 황수영은 회고담에서 “일찍이 한국미술사의 주류를 이루는 불교미술 특히 양대 예배대상인 탑상에 대한 기본 자료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스승이 탑에 대한 진전을 이루어 본인은 불상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 말씀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³

Ⅱ. 황수영의 불상 연구

1. 새로운 불상 자료의 소개

일제 식민지 지배 이후 국내 각처의 지표 또는 지하에서 다수의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수습되어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또한 한국 전쟁이 수습되면서 다시 전국에서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

국미술사와 함께 한 삶, 『정신문화연구』 79 (2000); 한국불교미술사학회, 『강좌 미술사』 43 (초우 황수영박사 특집, 2014. 12).

2 황수영, 「서산마애삼존불상에 대하여」, 『진단학보』 20 (1959); 진홍섭, 「영주 석포리 사면불석」, 『고고미술』 1-1 (1960)

3 강병희, 위의 글, p. 228.



도 1 서산 마애삼존불상, 백제 7세기초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들 유물들은 대부분 정식의 과정을 통해 수습된 것이 아니어서, 연구를 위한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이를 연구하는 우리 학계도 고유섭 이후 맥이 끊긴 상황이어서, 각 시대의 기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 중요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편 다수의 유물이 아직도 상당수 산간벽지에 방치되어 있던 지, 고대 사지에 그대로 매장되어 있었다. 선생은 이러한 난제의 극복이 첫 번째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였다.⁴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첫 번째 업적이 서산 마애불상의 발견과 소개이다(도 1). 즉 선생의 첫 번째 논문인 「서산마애삼존불상에 대하여」(『진단학보』 20, 1959)는 고유섭의 석탑 연구와 연관이 깊은 백제지역을 자주 찾으면서 이루어졌다. 이후 각지에서 발견된 미공개 불상자료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면서, 그의 불교조각사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즉 연기지방의 비암사석상(도 2)을 비롯한 통일신라초 석상들, 태안 마애불상, 부여출토 납석제상편, 군위석굴, 연가7년 명 금동여래입상, 익산출토 금제불상, 부여 규암출토 금동불, 보살상, 평양 평천리출토 금동반

⁴ 황수영, 「한국조각사」, 『한국문화사대계』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황수영 전집』 1 재수록, pp. 206-207)



도 2 비암사출토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통일신라, 국립청주박물관

가사유상, 서울 삼양동출토 금동보살입상 등에 대한 발견과 논고들이 그 대표적 결실이다.

위의 논고들을 개관해 보면 삼국시대 불상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양식고찰에 의해서 삼국 각국 불상의 특징을 언급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출토지로서 소속 국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미술사학 발전에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좀 더 계획적이고 조직화되어 한국일보사 후원으로 1964년~1967년에 신라오악 조사, 그리고 1969년~1972년에 경주 삼산조사 등으로 이어져서 많은 귀중 자료들이 조사되고 소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봉화 북지리 마애불 및 반가사유상, 경주 단석산

석굴, 군위석굴, 석굴암, 능지탑, 동해구 대왕암 등 수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조사되고 소개되었다. 위의 불상들은 한국조각사에서 양식의 전개 과정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불상들이다.

2. 백제 불상의 연구

선생에 의해 새롭게 소개된 불상들 중에는 백제불상이 많다. 이로써 당시 신라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 불교조각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서산과 태안의 마애불상 연구에 이어서, 선생의 전체 연구 성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백제 관련 논문이다. 특히 서산과 태안의 마애삼존불상은 백제를 대표하는 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삼존불 도상의 특수성이나 조각수법의 우수성이 지적되었다(도 3). 이들 불상의 밝게 웃는 얼굴 모습은 가장 대표적인 백제 불상의 특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마애불상이 조성되어 있는 서해안 지역이 주목되었고, 이곳이 대중국 교섭의 관문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게 되었다.

한편 부여를 중심으로 임강사지, 금



도 3 태안 마애삼존불상, 백제 6세기말,

강사지, 정림사지 등 사지의 발굴도 활발해져서 백제 불교문화의 면모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납석상, 소조상, 석상 등의 다양한 불상편들이 수습되었으나 대부분 파편들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선생은 백제조각사는 이러한 자료에서나마 진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들 논고를 통해서 신라 못지않게 번영했던 백제의 불교미술을 복원하고자 했다. 특히 삼국 안에서의 위치 뿐 아니라 일본 불교미술의 원류로서 백제 조각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6~7세기 동북아 불교조각사의 흐름에서 백제, 일본조각과의 관련은 아울러 중국 불상 양식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 하므로 당시로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3. 반가사유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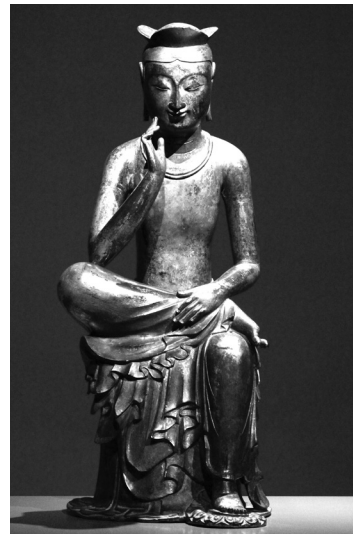
선생의 반가사유상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전개되었다. 즉 서산마애삼존상을 소개한 바로 다음 해에 「백제 반가사유석상 소고」(『역사학보』 13, 1960)가 발표되었다. 이는 당시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두 반가상인 국보 78호와 83호 반가사유상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성국가가 모두 신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의 제기였다(도 4, 5).

두 반가상의 반출과 관련된 일제강점기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관련자를 탐문하면서 그 진실에 다가가려 하였다. 특히 83호 반가상이 충청도 벽촌에서 나왔다는 설에 주목했고, 서산마애삼존상에서 백제의 반가사유상을 확인한데 힘입어, 기존에 알려졌던 부여 부소산출토 납석제 반가상편을 위시한 백제 반가상 자료의 확보와 해석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출토지가 거의 확실한 평양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1구가 해방 후 남한으로 전해져 민간에 소장되



도 4 국보78호 금동반가사유상, 삼국시대 6세기 말, 국립중앙박물관



도 5 국보83호 금동반가사유상, 삼국시대 7세기 전반, 국립중앙박물관

고 있는 사실을 밝히면서 희귀한 고구려 반가상의 예로 들었다.

신라 반가상의 예로는 이미 경주 송화산 출토 석조반가사유상과 안동 옥동출토 금동반가사유상이 전하고 있었는데, 이에 덧붙여 단석산석굴 마애반가상,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사유상 등이 잇따라 발견됨으로써, 신라 반가사유상의 계보에도 주목하였다.

특히 단석산석굴의 경우 화랑이었던 김유신과 연결 짓고 있고, 또 명문 판독을 통해서 이곳이 미륵불을 봉안한 미륵도량임을 확인하였다(도 6). 이로써 이후 반가사유상 조성의 신앙적인 배경을 특히 신라의 화랑과 연관된 미륵신앙과 연결하는 논지를 펴게 되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2점의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가 모두 망실되었고 또한 불상에 대한 양식연구가 아직 미약한 상태에서, 반가상 연구의 새로운 활로로서 주목된 것은 출토지가 분명한 새로운 반가상 자료의 확보였다. 이에 대해 선생은 『신라반가사유석상』(『이홍직박사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69)에서 “해방 후 오랫동안 이 같은 반가사유상에 대한 기본 자료의 정비와 신예의 검출을 위하여 힘을 모아 왔다. 동시에 이 양식상이 우리나라 삼국

기에 있어서 수용되고 유행되었던 신앙적 내실을 더하여 그 존명의 추정과 삼국 각별의 확실한 유품을 찾자 하였다.”라고 술회하고 있다.⁵

이에 반가사유상 유행의 신앙 배경을 밝히기 위하여 인도로부터 이분들이 중국, 일본 등의 자료를 섭렵하여 태자상 등 그 실상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경우 최종적으로 신라의 화랑과 관련된 미륵신앙에 주목하였고, 따라서 국보 78호·83호 반가상의 조성 국가도 최종으로는 신라로 판단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해 선생은 “오래동안 반가상에 친숙하려고 애써서 자취를 찾고 조형의 내실을 알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같은 생각에 기울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들 새로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



도 6 경주 단석산석굴, 신라 7세기 전반

⁵ 황수영, 『반가사유상』(대원사, 1992)

며 중요한 반가사유상들의 양식과 존명, 그리고 예술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도 飛鳥時代나 白鳳時代의 반가사유상의 원류 규명을 위해 우리나라 반가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미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과의 깊은 친연성이 주목되어서 한국계 반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광릉사 목조반가사유상과 1984년 대마도 정립사에서 발견된 백제계의 금동반가사유상 등은 그들이 중요하게 거론하는 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연구에도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의 계보 즉 삼국 각국의 반가사유상의 양식 파악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피서 문제점들을 규명해 보는 일은 앞으로의 반가사유상 연구의 전망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4. 신라불상 연구

신라불상에 대한 관심도 반가사유상 연구와 더불어 삼국시대 조각사의 규명 일환으로 지속되었다. 이미 알려져 있던 송화산 반가사유상과 경주남산 장창곡장래 석조삼존불상 이후 균위석굴, 봉화 석조반가사유상, 단석산석굴 등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그 연구가 이어졌다. 이들 중 균위석굴은 이후 석굴암 연구로 이어졌고, 단석산석굴 경우는 반가사유상 뿐 아니라 명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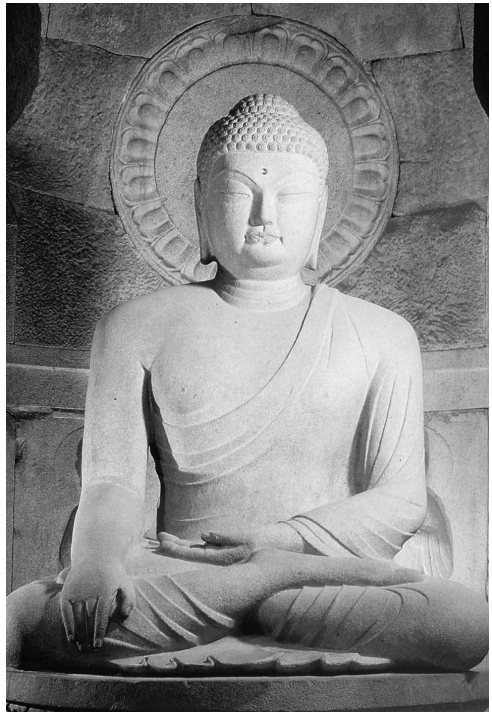
도 7 경주 남산출토 석조미륵삼존불상, 신라 7세기 전반, 국립경주박물관

가 발견되면서 이곳에서 반가사유상 조성의 신앙 배경을 찾고자 하였다.

이들 중 경주남산 장창곡장래 석조삼존불상에 관한 논고는 선생의 첫 논고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것으로(도 7), 그동안 섭렵한 무르익은 불상 연구의 방법론을 다각도로 피력하며 쓰여졌다. 이 삼존불상의 경우는 이미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에서 수습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하던 상이다. 마침 당시에 간행된 『慶州南山の佛蹟』에 이 불상에 관한 내용이 있고, 또한 당시 불상이 수습되는 과정을 알고 있는 古老들을 수차례 탐문하여서 불상의 원래 위치와 봉안 상태 등을 밝혔다. 아울러 불상의 형식 및 양식 고찰을 통해서 7세기 전반의 미륵삼존상으로 추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이 상을 『삼국유사』권3 「生義寺 石彌勒」조와 권2 「景德王 忠談師」조에 등장하는 남산삼화령미륵세존으로 비정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에는 치밀한 현장조사, 불상의 도상 및 양식고찰, 그리고 관련 문헌자료의 조사 등 미술사 연구의 여러 방법론이 망라되어 있고 선생의 작품의 해석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다.

5. 석굴암 연구

석굴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1년~1964년에 진행된 석굴암 중수 과정을 지휘 감독하고, 1965년 중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도 8). 보고서에는 석굴암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망라하여 창건의 연혁과 석굴암의 중수 연혁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선생은 특히 석굴암이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폐허로 있다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역대로부터 한국인에 의해 근세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공양과 향화가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었고 관리가 이루어져왔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석굴암 연구의 시작은 순수한 학문적 접근 보다는 중수와 보존이라고 하는 당시의 매우 시급한 실무적인 면이 우선시되었던 연구이다.



도 8 석굴암, 통일신라 8세기

이러한 과정에서 1962년에 중악인 팔공산에서 균위석굴이 발견되었다(도 9). 선생은 이 석굴과 석굴암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즉 균위석굴이 석굴암에 앞서는 자연 석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본존상이 항마촉지인의 아미타삼존불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경주 북부의 팔공산이나 태백산 등의 신라 오악 주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도 9 균위석굴, 통일신라 7세기 후반

그 결과 1964년~67년에 걸쳐 한국일보사의 후원으로 신라오악조사가 계획되었고, 이 연구에서 선생은 김원룡 선생과 더불어 동악인 토함산지역 연구를 맡아서 석굴암 연구를 보다 진척시키게 되었다. 특히 석굴암 자체에 대한 연구 보다는 그 조성의 배경과 관련하여 문무왕 동해구의 유적 조사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67년 동해구에서 대왕암 및 이견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와 같은 문무왕 관련 유적에 대한 관심은 1969~1972년에 신라 삼산 조사로 이어지면서, 경주 낭산의 능지탑을 문무왕의 화장 장소에 세워진 묘탑으로 추정하였다.

뒤 이어 1977년에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본존상이 초창의 모습을 간직한 항마촉지인의 아미타여래상임을 주목하였다.⁶ 다음 1978년에는 드디어 「석굴암본존 아미타여래좌상소고-신라 동해구 유적과 관련하여-」(『고고미술』 136·137, 1978.3)를 발표하여, 그간의 석굴암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석굴암 본존의 존명을 아미타불로 보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즉 석굴암을 동해구의 문무왕의 유적과 연결 지어 선대왕들을 위한 아미타 도량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1989년에는 그동안의 석굴암 연구를 종합하는 도록집인 『석굴암』(열화당)을 발간하여 전체 석굴의 역사, 조상의 개관, 그리고 사진자료, 관련 자료의 번역까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의 석굴암 연구는 반가사유상 연구에 비해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시 통일신라 불상의 도상 및 양식 전개에 대해 아직 깊이 있는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까닭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선생의 석굴암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그 어느 분야 보다 고유섭이 남긴 유업을 이어가는 긴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따라서 석굴암 연구에는 상당히 감성적인 접근이 많

⁶ 황수영, 「부석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불교미술』 3 (1977)

있다고 생각된다. 선생도 석굴암에 대한 연구와 보존, 그리고 문무왕대의 유적과 발굴에는 고 유섭 선생에 의해 유도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선생의 1962년 12월~1963년 5월까지 근 6개월에 걸친 인도 전역, 그리고 버마, 네팔, 실론,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긴 불적조사 여행이다. 현재에도 매우 어려운 그와 같은 학술조사 여행을 단독으로 감행한 것이 매우 인상적인데, 아마도 추후 석굴암 연구를 마음에 둔 것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Ⅲ. 진홍섭의 불상 연구

1. 새로운 불상 자료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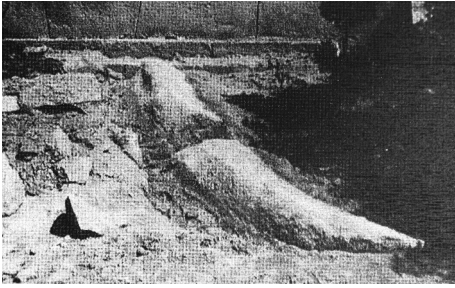
선생의 첫 번째 논문은 1960년 『고고미술』 1-1집에 수록된 「영주 석포리 사면불석」이다(도 10). 이후 선생의 논고는 주로 경주 및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소재한 상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많다. 이는 선생이 1952~1961년까지 10여 년간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장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수차례 안동지역의 학술조사 및 발굴 조사를 수행하면서 이 지역의 불교문화 특성에 주목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은 1964년 실시된 신라오악 조사에서 북악인 태백산지역 조사 책임으로 이어졌다.



도 10 영주 석포리 사면석불, 신라 7세기 중반

2. 신라북악 태백산유적 조사보고서

1964~67년에 걸쳐 한국일보사 후원으로 이루어진 신라오악조사에서 선생은 정영호선생과 함께 북악인 태백산지역 조사를 맡았다. 이 조사 보고서를 1979~1982년 사이에 7회에 걸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에 실고 있어서 당시의 사진 자료와 더불어 상세한 내용



도 11 부석사 무량수전 앞마당 지하에 묻힌 석물, 「신라북악태백산유적조사보고(3)」중 도 36

수의 사진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등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도 11). 이와 같은 조사 과정을 통해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불교문화 연구는 한층 심화되었다.

을 파악할 수 있다.⁷ 당시 신라오악조사의 전체 종합보고서는 출간되지 못하였는데, 10여년 뒤 선생은 본인이 맡은 부분을 성실히 작성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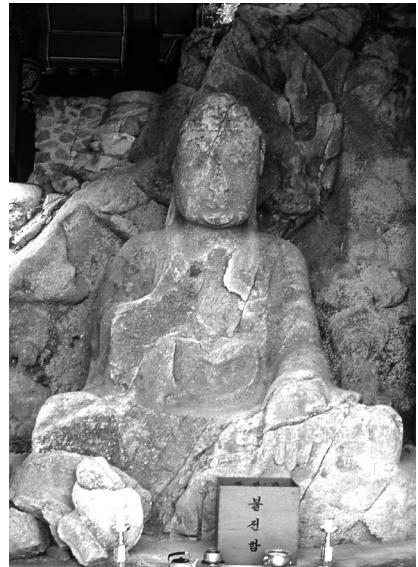
당시 조사는 주로 불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개요 및 유물 설명, 그리고 사진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비교적 자세한 불적 조사 보고서로 평가되는데, 특히 현재 볼 수 없는 다

3.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미친 고구려의 영향 : 북방문화 전래 경로의 상정

1971년에 경상북도 북부지역인 영주 순흥에서 ‘乙卯年於宿知述干’의 명이 있는 고구려의 영향을 보이는 벽화고분이 발견되었다. 그 논고인 「신라어숙술간묘」 발견의 의의-영주벽화고분 조사의 의의-」(『이대학보』 447호)에서 이 지역의 문화에 미친 고구려의 영향을 상정하였다.

1973년에는 그동안 관심을 보였던 신라 북부지역 불상들을 모아서 「신라 북경지역 불상의 고찰」(『대구사학』 7·8집)을 발표하며, 고구려 불교미술문화가 분명히 이곳 봉화, 영주지역에 미치고 있다는 북방문화의 전래경로를 조심스럽게 언급하였다(도 12).

이와 같은 관점은 삼국시대 전 미술문화로 확대되어 선생의 박사학위 논문인 『삼국시대 고구려



도 12 봉화 북지리 마애불좌상, 신라 7세기 중반

7 진홍섭, 「신라 북악태백산 유적 조사보고(1-7)」,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4-40(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9-1982)

미술이 백제·신라에 끼친 영향'에 수렴되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다양한 미술품에 보이는 여러 문양들을 보다 세밀하게 형식 분석하여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였다.

4. 개설서 및 미술사 관련 자료집의 출간

선생은 오랫동안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불상 관련 개설서의 필요성을 절감한 듯하다. 이에 1976년 『한국의 불상』(일지사)을 출간하였는데, 불상의 개념부터 불상의 도상 및 양식의 원류가 되는 인도 및 중국의 불상, 그리고 한국 불교전래 관련 문헌, 한국 불상의 양식 변화 과정 그리고 실제 조상 예를 시기별로 거론하는 등 종합적인 불교조각사를 서술하였다. 이 책은 이후 한국 불상에 관한 입문서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시대 불상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가 아직 미약하여 부분적으로 소략한 부분이 있다. 또한 불상의 도상을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 불상의 예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조각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이어서 1978년에는 『일본미술사』(久野健, 辻惟雄, 永井信一 共著, 열화당)를 번역 출간하여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일본 불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1981년에는 최순우 선생과 함께 『한국미술사 연표』(일지사)를 편저하였다. 고회를 맞이하신 1987년부터는 미술사 관련 문헌자료집성에 힘을 모아 마침내 『한국미술사 자료집성(1-9)』을 1996년에 이르러 완간하였다. 이 문헌자료집성에는 아직도 미처 논의되지 않았던 불상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노년에도 한국미술사에 대한 학문적 열정을 유감없이 후학에게 보여 주었다.

5. 중국, 일본 불상과의 비교 연구

개설서의 편찬 이후 선생의 논고에서는 중국 및 일본 불상과의 비교 연구가 적극적으로 논의됨을 볼 수 있다. 특히 1981년부터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로서 삼국시대부터 연차적으로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불상 연구인 「안압지출토 금동판불」(『고고미술』 154·155, 1982), 고려시대 불상 연구인 「고려후기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라마불상양식」(『고고미술』 166·167, 1985)이다(도 13, 14). 그 외 「고대 한국불상양식이 일본불상양식에 끼친 영향」(『이화사학연구』 13·14, 1983) 이 있다. 광배나 대좌의 문양 비교 분석 외에도, 불·보살상의 세부 형식을 수인, 보관, 지물, 대좌 등으로 나누어 중국이나 일본의 불상들과 비교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도 13 안압지출토 금동삼존불상, 통일신라
7세기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도 14 금동여래좌상, 고려 후기, 국립
중앙박물관

선생의 불상 연구를 살펴보면, 스승인 고유섭의 그림자가 적어 보인다. 그 보다는 본인이 10년간 재직했던 경주를 중심으로 한 불교미술 자료로서 연구 입지를 찾아가고자 노력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후에는 교수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충실한 개설서의 편찬에 힘을 쓰신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 황수영, 진홍섭의 불상 연구 의의 및 앞으로의 전망

두 분의 미술사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특히 불상 연구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분의 불상 관련 초기 연구 활동은 기초 자료를 발굴 조사하고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후 선생들이 이룬 학문적 성과를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다.

즉 연구 영역에서는 좀 더 전문화된 불상 자료의 확보를 위해 신라오약조사 및 경주삼산조사 같은 대규모 협업 연구를 계획하여 꾸준한 현지 조사와 연구를 이어갔다. 아울러 명문 및 문헌자료의 수집에도 주목해서 작품의 해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 작업은 이후 불상 관련 도록 및 개설서의 편찬으로 이어져서 불상 연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선생들은 당시의 한계를 인정하시면서 “조각사를 쓰지만 삼국 및 통일신라기 작품을 중심 삼아서 기왕의 연구와 주요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 조각사 연구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작업에서부터 비롯하여 긴 세월을 두고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솔직한 한 바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중국 불상과의 비교를 통한 편년 및 도상 고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고려, 조선시대 불상에 대해서도 일부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심도 있는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당대가 지닌 연구 여건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선생들이 활약하신 또 다른 분야는 불상을 포함한 문화재 관련 행정 분야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일들을 모두 수행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문화재 지정조사 및 보수 관련 자문업무, 박물관 업무, 그리고 문화재 관련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관련된 여러 일들이 그러한 사례이다. 아마도 그러한 일들에 사명감을 인식하고 충실히 이행한 듯하다. 한편 이러한 문화재 행정의 수행은 본인들의 학문적 연구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개인의 학문적 연구 외에도, 출판, 문화재 행정을 아우르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문화재 관련 학문이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으로 인식이 올라가는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시대가 부여했던 미술사학자로서의 사명 및 또는 선생들이 놓였던 인생에서의 역량이나 위치에서 부여된 사명 등을 충실히 이행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선생들의 연구 활동에 비추어 현재의 연구자들이 본받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불상자료 조사 작업의 확대라고 생각된다. 현재 불상 연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전문화되었으나, 지나치게 연구사의 파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조사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문화재 지정조사나 국보, 보물 등 도록의 편찬 사업, 또는 연구 프로젝트 등은 다양한 불상자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는 새로운 불상이 다수 발견되는 시기도 아니고, 또한 불상 관련 지정 건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1995년부터 10년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편찬이나 중앙 및 지방의 『문화재 대관』 등 편찬 사업으로 좀 더 지방문화재까지 확산된 불적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소강상태이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자들은 과거에 비해 불상의 실물에 접할 기회가 많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인 편찬 사업은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 같은 국가 기관이나 불교 관련 연구 기관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조사 사업은 미래의 연구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그러한 점에서 좀 더 연구 과제나 편찬 사업의 활성화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key words)_ 황수영(黃壽永, Hwang Su-young), 진홍섭(秦弘燮, Chin Hong-sup), 탄신 100주년(誕辰 100周年, The 100th Anniversary of Their Births), 불상 연구(佛像研究, Buddhist Sculpture Studies), 고유섭(高裕燮, Ko Yu-seop), 한국미술사(韓國美術史, History of Korean art)

황수영 선생님 불상관련 논문

연도	나이	활동	논문
1950	33	1948년~1950년 국립박물관 본관 박물관	
1956	39	동국대학교 교수	
1959	42		「서산마애삼존불상에 대하여」, 『진단학보』 20.
1960	43		「백제반가사유 석상 소고」, 『역사학보』 13.
1961	44	석굴암 중수 시작 한일협정 대표단	「비암사소장의 신라在銘석상」, 『고고미술』 1-4. 「在日石獅坐像과 그 방형대좌」, 『고고미술』 2-2. 「공주 석조 불상의 조사」, 『동국사학』 6. 「서울시내의 석조광배 2구」, 『고고미술』 2-6.
1962	45	석굴암 중수	「석굴암에서 반출된 탑상」, 『고고미술』 3-5. 「충남태안의 마애삼존불상」, 『역사학보』 17-18. 「李朝초기의 문자각자자기와 삼존불상」, 『고고미술』 3-6. 「백제석제소상단편(其一)」, 『고고미술』 3-7. 「고려석불입상 兩軀」, 『고고미술』 3-7. 「안동의 인왕석상」, 『고고미술』 3-10. 「택미 금동반가사유상 좌족과 연대」, 『고고미술』 3-11. 「신라 사천왕조각대석」, 『고고미술』 3-11. 「군위 삼존석」, 『미술자료』 6.
1963	46	1962년 12월~1963년 5월 인도, 버마, 네팔, 실론, 파키스탄 불교유적 조사 여행 동국대학교 박물관장	「신라석불5례」, 『고고미술』 4-1. 「백제불상양식의 연구」, 『業積報告書』 61-62. 「익산출토의 금소불좌상」, 『고고미술』 4-11. 「공주박물관 장 불상대좌석」, 『고고미술』 4-11. 「부여규암출토백제불보살상」, 『미술자료』 8.
1964	47	석굴암 중수 종료 1964년~1967년 신라오악조사 시작 (동악조사 담당)	「보화각의 석불2구」, 『고고미술』 5-2. 「삼국시대의 조각」, 『예술총람』. 「고려의 조각」, 『예술총람』. 「석굴암의 창건과 연혁」, 『역사교육』 8. 「在日금동불상2구」, 『고고미술』 5-2. 「李朝의 조각」, 『예술총람』. 「고구려금동불상의 신래 2좌」, 『이상백학사학회기념논총』 「경주 남산 장창곡에서 옮긴 삼존석상」, 『사학회지』 7. 「충남 연기석상 조사개요」, 『예술원론』 2.
1965	48	신라오악조사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 작성	「전남 보성읍 출토의 탑상」, 『고고미술』 6-2. 「전 서울 근교출토 금동여래입상」, 『고고미술』 6-3·4. 「고려 청동여래좌상」, 『고고미술』 6-10-11. 「봉화 발견의 반가사유 석상」, 『고고미술』 6-12.
1966	49	신라오악조사	「인도 석굴사원 조사 약기」, 『불교학보』 3.
1967	50	신라오악조사 종료	「유점사 53불」, 『고고미술자료 제 16집, 고고미술동인회』.
1968	51		「신라 삼화명 미륵세존」, 『金載元 박사회갑기념논총』. 「우리나라 불상의 시대적 특성(삼국시대) 上」, 『法輪 三·下法輪 四』. 「서울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미술자료』 21. 「충남 태안의 마애삼존불상 補」, 『고고미술』 9-9.
1969	52	경주삼산조사 시작	「유점사 53불」, 『불교학보』 6.
1970	53	경주삼산조사	「조각사」, 『한국문화사대계』 IV. 「Gilt-Bronze Images of Buddha in Korea」, 『Korea Journal』 10-7. 「백제의 불교조각-부여기를 중심으로」, 『백제연구』 1.

1971	54	경주삼산조사 국립중앙박물관장 역임 (1971년~1974년)	
1972	55	경주삼산조사 종료	
1973	56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단석산신선사석굴마애상」,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금동반가사유소상의 신례」, 『고고미술』 118. 「백제제석사지의 연구」, 『백제연구』 4.
1974	57	국립중앙박물관장 퇴임 동국대학교 교수 복직 동국대학교 박물관장	『신라의 석불』, 朝日新聞社 (일본어판). 『불탑과 불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신라 성주사지의 甍佛자료-부여박물관 소장품에서」, 『미술자료』 17. 「전 청주 출토 석조반가사유상」, 『고고미술』 121-122.
1975	58		「백제의 불상조각」, 『백제문화』 7.8.
1976	59		「신라반가사유상의 신례」, 『고고미술』 142.
1977	60		「한국탑상의 연구-다보탑과 반가상」, 『고고미술』 134. 「부석사 소조아미타여래상」, 『불교미술』 3.
1978	61		『한국불상의 연구, 同朋舍 (일본어판). 「석굴암 본존 미타여래좌상 소고」, 『고고미술』 136-137.
1979	62		『한국불교미술-불상편』, 중앙일보사. 『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의 불상조각」, 『한국의 미』
1980	63		「전북 김제출토 백제동판불상」, 『불교미술』 5. 「삼국시대의 미륵반가사유상」, 『제 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81	64		「백제의 불상조각-해방 후의 신자료를 중심으로」, 『고고미술』 150. 「15, 16세기의 불상」, 『동양학학술회의강연』 11.
1982	65	동국대학교 총장	『한국불상300선』(공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신라시대의 철불」, 『고고미술』 154·155. 「신라의 불상과 일본」, 『신라문화계 학술발표논문집』 3. 「전북 김제출토 백제동조판불」, 『마한, 백제문화』 4.
1983	66		『한국의 석굴암』, 近藤出版社 (일본어판) 「정읍〈부처당이〉석불입상 2구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 7. 「백제석상 신자료 2건(도판)」, 『백제연구』 14.
1984	67	경주삼산조사 시작	『국보2 (금동불과 마애불)』, 예경. 「익산지구의 새로운 주목」, 『마한, 백제문화』 7.
1985	68	경주삼산조사	『반가사유상의 연구』(공저), 吉川弘文館. 「고려시대의 철불」, 『고고미술』 166-167. 「미륵과 반가사유상」, 『일본학』.
1986	69	동국대학교 정년퇴임	
1987	70		「미륵신앙과 그 조성-삼국을 중심으로」, 『한국 미륵사상 연구』.
1988	71	『초우 황수영박사 고회기념 미술사학논총』, 통문관	『석굴암』, 예경. 『석굴암』, 열화당.
1989	72		『한국의 불상』, 문예출판사.
1990	73		『경주남산 탑곡의 사방불암』, 통도사 정보박물관.
1991	74		『석굴암연구회지』, 석굴암연구회.
1992	75		『반가사유상』, 대원사. 『국보4 (석불)』, 예경.
1994	77		『석굴암』, 열화당, 河出書房新社 (일본어판). 「백제의 불교조각-부여기를 중심으로」, 『백제연구총서』 4.

1996	79		『유점사 53불』, 부산삼광사. 『백제의 학술과 예술』, 『문화사학』 5.
1997	80		『황수영 전집 5-한국의 불교미술』, 혜안.
1998	81		『황수영 전집 1-한국의 불상 상』, 혜안. 『황수영 전집 2-한국의 불상 하』, 혜안. 『황수영 전집 3-한국의 불교공예·탑파』, 혜안.
1999	82		『황수영 전집 4-금석유문』, 혜안. 『황수영 전집 6-인도일기』, 혜안.
2000	83		『석굴암보존 명호고』,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1.
2011	94	별세	

진흥섭 선생님 불상관련 논문

연도	나이	활동	논문
1950	33	1947년~1952년 국립박물관 개성분관장	
1955	38	1952년~1961년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장	
1960	43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장	『영주 석포리 사면불석』, 『고고미술』 1-1. 『문경 관음리의 석불과 석탑』, 『고고미술』 1-2. 『예천 동본동발견 금동관음보살입상』, 『고고미술』 1-3. 『경주 출토 삼존전불의 또 한 예』, 『고고미술』 1-4.
1961	44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장	『입실역의 양각 보살좌상』, 『고고미술』 2-1. 『사천왕상 벽전의 일례』, 『고고미술』 2-3. 『상주 화령의 석불』, 『고고미술』 2-6. 『영주 흑석사의 석조불상』, 『고고미술』 2-7. 『석굴암 보존의 경위』, 『고고미술』 2-8. 『석굴암에서 발견된 유물』, 『고고미술』 2-8. 『연기의 삼존천불 비상』, 『고고미술』 2-9. 『상주 화서면의 석불』, 『고고미술』 2-10. 『숙수사지 출토 동불』, 『고고미술』 2-12.
1962	4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과장	『연기 계유명 삼존천불비상에 대하여』, 『서양사론』 3-1. 『봉화 봉성리 석불』, 『고고미술』 3-1. 『대상2년명 석조보살입상』, 『고고미술』 3-2.3. 『영주 휴천리 마애석불』, 『고고미술』 3-4. 『계유명 삼존천불비상에 대하여』, 『역사학보』 17-18. 『영월 발견 금동여래입상』, 『고고미술』 3-10. 『경주 서악리 마애석불의 형식보살』, 『미술자료』 6.
1963	46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선산 해평동 석조여래좌상』, 『고고미술』 4-1. 『석제주약상』, 『고고미술』 4-3. 『경주 남산 미륵곡의 마애석불좌상』, 『고고미술』 4-4. 『금동여래입상과 보살입상』, 『고고미술』 4-5. 『구례 오산마애여래입상』, 『고고미술』 4-9. 『영동 신항리 삼존불석상』, 『고고미술』 4-10.

1964	47	1964년~1967년 신라오악조사 시작 (북악조사 담당)	「금동여래입상」, 『고고미술』 5-3. 「간다라 불상의 일례」, 『고고미술』 5-5. 「안동 영양경주의 탐상 신례」, 『고고미술』 5-8. 「안동 장기동 마애삼존불」, 『고고미술』 5-9. 「남원 여원치의 마애여래상」, 『고고미술』 5-11.
1965	48	신라오악조사	「경주 감산사지-송복사지의 조사」, 『고고미술』 6-5. 「Silla Sculpture」, 『Korea Journal』 5-5.
1966	49	신라오악조사	「Sculpture Art in the Three Kingdoms」, 『Korea Journal』 6-4. 「사불산 사불암과 묘적암 마애여래좌상」, 『고고미술』 7-9.
1967	50	신라오악조사 종료	「안동 금소동 탐상」, 『고고미술』 8-3.
1968	51	한국미술사학회 대표위원	「대전사발건 금동불상」, 『고고미술』 9-4. 「학가산 마애불입상」, 『고고미술』 9-4. 「법천사지 석조광배」, 『고고미술』 9-10.
1969	52		「고려시대의 불상—금동불, 철불을 중심으로」, 『월간중앙』 19.
1973	56		「신라 북경지역 불상의 고찰」, 『대구사학』 7-8. 「서평 : 한국불상의 연구」, 『이대사범』 11.
1975	58		「경주의 고적」, 열화당. 「삼국시대의 미술문화」, 동화출판공사.
1976	59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78	61		「일본미술사」, 열화당.
1979	62		「신라북악태백산유적조사보고(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4.
1980	63		「신라북악태백산유적조사보고(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5-36.
1981	64		「한국미술사년표」, 진홍섭, 최순우 편저, 일지사. 「고신라시대의 조각」, 『고고미술』 150. 「신라북악태백산유적조사보고(4-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7-39.
1982	65		「석불」, 호영출판사 (진홍섭, 안장현 공저). 「한국불상 300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황수영, 진홍섭, 정영호 공저). 「안압지출토 금동판불」, 『고고미술』 154-155. 「서울 근교의 마애불상」, 『향토서울』 40. 「신라북악태백산유적조사보고(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0.
1983	66	이화여자대학교 정년퇴임	「고대 한국불상양식이 일본불상양식에 끼친 영향」, 『이화사학연구』 13. 14.
1984	67		「백제불상의 새로운 주목」, 『마한, 백제문화』 7.
1985	68		「고려후기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라마불상양식」, 『고고미술』 166-167.
1987	70		1987년~1996년 「한국미술사 자료집성(1-9)」, 일지사.
1989	72		「불상」, 대원사.
1995	78		「금동불」, 대원사.
1997	80		「석불」, 대원사.
2010	93	별세	

참고문헌

- 강병희, 「초우 황수영 : 한국미술사와 함께 한 삶」, 『정신문화연구』79, 2000.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13·14(수목 진홍섭박사 퇴임기념논총), 1983.
- 진홍섭, 『경주의 고적』, 열화당, 1975.
- _____, 『삼국시대의 미술문화』, 동화출판공사, 1975.
- _____,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76.
- _____, 『일본미술사』, 열화당, 1978.
- _____, 「신라북악태백산유적조사보고(1~7)」, 『한국문화연구원 논총』34~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9~1982.
- 진홍섭, 최순우 편저, 『한국미술사년표』, 일지사, 1981.
- 진홍섭, 『한국미술사 자료집성(1-9)』, 일지사, 1987~1996.
- _____, 『불상』, 대원사, 1989.
- _____, 『금동불』, 대원사, 1995.
- _____, 『석불』, 대원사, 1997.
- 한국미술사학회, 『고고미술』136·137(수목진홍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78. 3.
- _____, 『고고미술』138·139(초우 황수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78. 9.
- _____, 『미술사학연구』188(한국미술사연구 30년 : 회고와 전망), 1990.12.
- 한국불교미술사학회, 『강좌 미술사』43(초우 황수영박사 특집), 2014. 12.
- 황수영,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 1965.
- _____, 『유점사 53불』(고고미술자료 제 16집, 고고미술동인회), 1967.
- _____,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1973.
- _____, 『불탑과 불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_____, 『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 황수영, 진홍섭, 정영호 공저, 『한국불상 300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황수영, 『석굴암』, 예경, 1988.
- _____, 『석굴암』, 열화당, 1988.
- _____, 『한국의 불상』, 문예출판사, 1989.
- _____, 『경주남산 탑곡의 사방불암』, 통도사 성보박물관, 1990.
- _____, 「선사의 길을 따라」, 『한국사시민강좌』11, 1992.
- _____, 『반가사유상』, 대원사, 1992.
- _____, 『황수영전집』(1-6), 혜안, 1997~1999.

국문초록

황수영·진홍섭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분들의 학문을 회고해 보면 한국미술사학이 어떠한 기초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곳에서는 특히 두 분의 불상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분의 불상 관련 초기 연구 활동은 기초 자료를 발굴 조사하고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후 선생들이 이룬 학문적 성과를 보면 놀라울 수 밖에 없다. 즉 연구 영역에서는 좀 더 전문화된 불상 자료의 확보를 위해 신라오악조사 및 경주삼산조사 같은 대규모 협업 연구를 계획하여 꾸준한 현지 조사와 연구를 이어갔다. 아울러 명문 및 문헌자료의 수집에도 주목해서 작품의 해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 작업은 이후 불상 관련 도록 및 개설서의 편찬으로 이어져서 불상 연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선생들은 당시의 한계를 인정하시면서 “조각사를 쓰지만 삼국 및 통일신라기 작품을 중심 삼아서 기왕의 연구와 주요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 조각사 연구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작업에서부터 비롯하여 긴 세월을 두고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솔직한 바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중국 불상과의 비교를 통한 편년 및 도상 고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고려, 조선시대 불상에 대해서도 일부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심도있는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당대가 지닌 연구 여건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선생들이 활약하신 또 다른 분야는 불상을 포함한 문화재 관련 행정 분야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일들을 모두 수행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문화재 지정조사 및 보수 관련 자문업무, 박물관 업무, 그리고 문화재 관련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관련된 여러 일들이 그러한 사례이다. 아마도 그러한 일들에 사명감을 인식하고 충실히 이행한 듯하다. 한편 이러한 문화재 행정의 수행은 본인들의 학문적 연구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개인의 학문적 연구 외에도, 출판, 문화재 행정을 아우르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문화재 관련 학문이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으로 인식이 올라가는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시대가 부여했던 미술사학자로서의 사명 및 또는 선생들이 놓였던 인생에서의 역량이나 위치에서 부여된 사명 등을 충실히 이행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선생들의 연구 활동에 비추어 현재의 연구자들이 본받아야 할 바는 무엇보다 실제적인 불상자료 조사 작업의 확대라고 생각된다. 현재 불상 연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전문화되었으나, 지나치게 연구사의 파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조사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문화재 지정조사나 국보, 보물 등 도록

의 편찬 사업, 또는 연구 프로젝트 등은 다양한 불상자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는 새로운 불상이 다수 발견되는 시기도 아니고, 또한 불상 관련 지정 건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자들은 과거에 비해 불상의 실물에 접할 기회가 많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인 편찬 사업은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 같은 국가 기관이나 불교 관련 연구기관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조사 사업은 미래의 연구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그러한 점에서 좀 더 연구 과제나 편찬 사업의 활성화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Buddhist Sculpture Studies of Hwang Su-young and Chin Hong-sup

Kim, Choon sil*

When we look back on the accomplishments of Hwang Su-young and Chin Hong-sup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ir births, their achievements show where Korean art history began and how it arrived to the present. This study examines their works on Buddhist sculptures.

Hwang and Chin's early researches were mainly centred on excavation and analysis of primary sources, but their academic achievements thereafter are mesmerizing. They planned large-scal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for example on the Silla Five Sacred Mountains and the Three Mountains of Gyeongju, to obtain more specific and specialized information on Buddhist sculptures, and continued further research. They also paid attention to inscriptions and written documents, collecting them for studies of sculptures.

Their preliminary research were published into introductory surveys and catalogues that provided foundations for Buddhist sculpture studies. However, they recognized their limitations by stating that, "though we have written a history of sculptures, its main focus is on works from Three Kingdoms Dynasty and Unified Silla, and offers only brief introductions to major works. Research on Korea sculptures must begin from these preliminary writings and make progres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ir works did not include dating by comparison with Chinese Buddhist sculptures or iconographical analysis, and though some interests were expressed about the sculptures of Goryeo and Joseon, they were not developed into full-depth research. This, of course,

* 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riginates from the academic limitations of the time.

They also took responsibilities in administrations for cultural heritage that includes Buddhist sculptures. In the 1960s, as the Korean society became more stable, Hwang and Chin took active parts in various works that were related to cultural heritages. Designated surveys for preservation, consultations for repair work, administrative works for museums, and improving public awareness of cultural heritage are some examples of their extensive endeavours. It is apparent that they felt a sense of duty towards their roles and worked with dedication. Moreover, these administrative works likely supported their academic competence as well.

Two scholars' area of expertise encompassed not only individual research but also publication, administrative works that contributed to the fast improvement of social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related studies. They were devoted scholars who carried out their duties that the era had put before them, the best they can, in their capacity and position.

Their extensive field research is an example that today's scholars must learn from above all else. Buddhist sculpture studies have made great progress and became specialized into specific fields, but tends to depend too heavily on historiography.

Individual field research is vital but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such as designated surveys, catalogue compilation of National Treasure and Treasures, and research projects. As the age of major excavation or discovery are past, and as few Buddhist sculptures are designated for research, there are only few opportunities for first-hand experience for researchers. Today, national-scale compilation works are only made by some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the Nation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Buddhism-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These projects are important processes through which young scholars can enhance their learning, meaning that more prolific research or compilation projects are needed.